200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3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응시계열,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학생들이 만든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풍성한 미래를 위해 가파른 길을 오르는 양이 되어 보십시오.
② 양이 지금 서 있는 이 비탈길, 당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③ 현명한 투자, 히말라야 고산족의 투자법에서 배우십시오.
④ 양을 떠나보내는 히말라야 고산족의 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⑤ 산비탈을 오르든 계곡으로 내려가든,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2. (물음) 이 인터뷰 내용을 신문 기사로 작성한다고 할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게놈의 진정한 계승자 피지움
— 명분과 실리의 조화
② 게놈을 딛고 선 피지움
— 겉과 속을 동시에 보는 안목
③ 게놈 이후를 열어갈 피지움
—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
④ 게놈 이후의 희망 피지움
—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한 노력
⑤ 게놈은 가고 이제는 피지움
— 속도보다는 여유에서 느끼는 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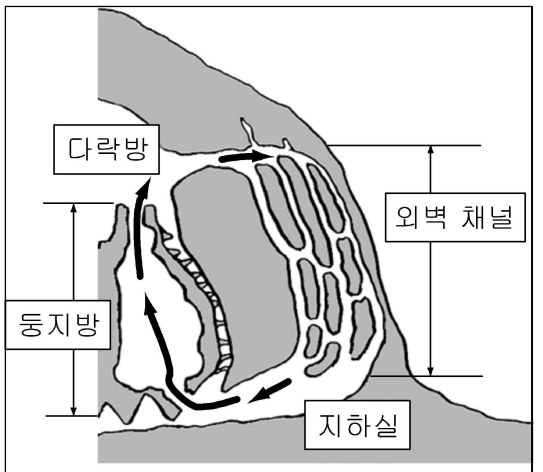
3. (물음) 이 강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반응을 보인 청중은?

① 첫째 청중 ② 둘째 청중
③ 셋째 청중 ④ 넷째 청중
⑤ 다섯째 청중

4. (물음) 이 토론에서 여성 토론자가 내세울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②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③ 호주 개념이 없는 서구에도 가족은 엄연히 존재한다.
④ 서구에는 부인 성에 남편 성을 덧붙이는 나라들이 많다.
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5~6〕 그림을 보며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흰개미의 공기 조절 장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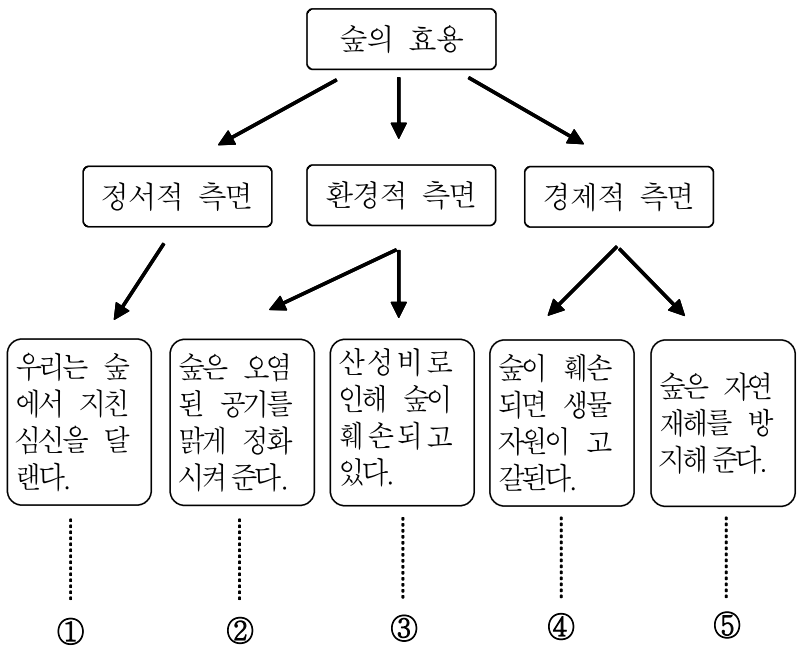
5. (물음) 이 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둥지 내부가 넓을수록 공기 조절이 잘 이루어진다.
② 둥지 내부에 사는 균들은 흰개미와 공생 관계에 있다.
③ 둥지 내부의 공기 조절은 외벽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둥지 내부에서 공기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은 다락방이다.
⑤ 둥지 내부에서는 장소에 따라 5℃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난다.

6. (물음) 이 강의의 내용으로 보아 강의 개설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교정한다.
② 현대 건축의 근원이 된 자연을 탐색한다.
③ 현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④ 현대 건축과 동물의 집의 구조적 차이를 인식한다.
⑤ 동물의 집에서 기능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발견한다.

7. '숲을 보전하자.'를 주제로 하여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8.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글감을 수집하여 개요를 작성하였다. 이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글감 〉

○ 자전거 이용의 이점
: 건강 증진, 교통비 절감,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대기 오염 억제, 정감 있는 거리 조성 등

○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자전거 전용 도로의 문제
: 전용 도로 부족, 허술한 관리 등
- 자전거 이용시 안전 문제
: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리한 도로교통법 등

○ 자전거 이용의 모범 사례
: 외국의 자전거 친화 정책, 상주·제주 등의 모범적인 사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심 자전거 제도 등

▶

〈개요〉

처음 : 자전거 이용의 현황

중간
1. 자전거 이용의 이점
 가. 개인적 차원 - 건강 증진, 교통비 절감
 나. 사회적 차원 - 대기 오염 억제,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2.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가. 시설상의 문제점
 나. 제도상의 문제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가. 전용 도로 확충
 나. 전용 도로 관리 강화
 다. 도로교통법 개정

끝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로 건강을 지키자.

① 중간1의 가.에 자전거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이점을 추가한다.
② 중간2에 새 항목을 추가하여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양심 자전거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③ 중간3의 세 항목을 중간2에 맞춰 '시설의 개선'과 '제도의 보완' 두 항목으로 묶는다.
④ 중간3에 '자전거 이용 의식 고취'라는 새로운 항목을 설정하여 모범적 이용 사례를 소개한다.
⑤ 끝에 중간1의 내용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나 교통난 해소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

9.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른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한 논지 전개 방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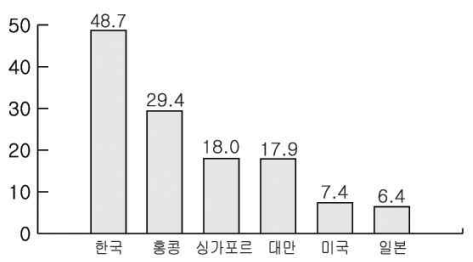
〈보기〉

(가)

연도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추이 (단위:명)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3,801	373,571	4,017,492	7,805,515	10,002,015

주요국의 인터넷 가정 보급률
(2001년말, 1백 가구당 가입자 기준 %)



(나)

인터넷을 타고 들어온 온갖 정보는 국가, 기업은 물론, 개인의 생활 양식까지 바꾸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과 활용도의 차이에 따라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 교수의 논평 -

(다)

최근 통신 업체들은 추가적 비용 부담 요인이 거의 없는 각종 인터넷 부가 서비스를 신설하면서 그 이용료를 받아 사용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통신 업체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의 일부라도 사용자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신문 기사에서 -

① 인터넷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상업적 이득만을 추구함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②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빈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바뀌고 있음을 제시하고 빈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제안한다.
③ 인터넷 사용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걸맞게 통신 업체의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④ 인터넷 보급률은 외국에 비해 높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한다.
⑤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삶의 양식까지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10. 인터넷 게시판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것은?

① 이 작품은 감동 그 자체죠. 왜 진작 이 애니메이션을 보지 못했을까……. 그러나 늦게나마 이 영화를 본 것은 대단한 행운이란 생각이 드네요.
② 이 영화는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현 기법에 주목해서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표현미의 진수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③ 남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애를 쓰던 여주인공이 생각나네요. 또 여주인공이 가사를 바꿔 불렀던 주제가도 떠오르고요. 원곡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감상해 보세요. 애니메이션 애호가라면 이 영화를 꼭 보셔야 합니다.
④ 저는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초반에는 많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작품이 끝나는 장면에선, 여러분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슴이 뿌듯해질 것입니다.
⑤ 실제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화제가 되었던 애니메이션!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일출의 장면은 실사 영화를 뛰어넘는 명장면. 이 영화를 안 본 사람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11. 전자 국어 사전을 사용하여 〈보기〉에서의 '-감'과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며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어머니께서는 포목점에서 한복감을 끊어 오시는 길에 완구점에 들러 동생 장난감도 사 오셨다.

<1단계> '감'이 들어가는 단어 검색 ➡ <2단계> 표제어 '감' 찾기

겉감
곶감
글감
눈요깃감
땔감
땡감
빨랫감
사윗감
안감
일감
ⓐ장난감
ⓑ한복감

감1명 감나무의 열매.
감2명
㉠ 옷이나 이불 따위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피륙.
㉡ '옷을 만드는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옷감을 세는 단위.
㉣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감3명 주로 '내다', '못 내다'와 함께 쓰여 어떤 일에 선뜻 손대어 하여 보려는 마음.

① ⓐ의 '감'은 감2㉤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는 '명사+명사'의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② ⓑ의 '감'은 '겉감, 빨랫감, 일감'과 같이 감2㉡의 뜻을 지님을 알게 되었다.
③ '곶감'은 '꼬챙이'의 옛말인 '곶'에 감1이 결합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④ "그 녀석! 장군감이네."에서 '장군감'은 '장군'에 감2㉣이 결합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⑤ 1단계에서 검색한 단어는 단일어가 아니라 모두 복합어임을 알게 되었다.

12. 〈보기〉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쓴 글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간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감명 깊었다. ㉡선생님의 말씀 중, 간디는 ㉢진리를 위해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평생을 고뇌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 온 내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의 사상에 무지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오늘 밤에는 삶의 목표와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① ㉠ - '너무'는 부정적 의미만 지닌 단어이므로 '매우'로 바꾼다.
② ㉡ - 서술어와 호응이 이뤄지도록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으로 고쳐 쓴다.
③ ㉢ -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로 고쳐 쓴다.
④ ㉣ -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그지 없었다'로 고쳐 쓴다.
⑤ ㉤ - 글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13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 낡은 밤에 숨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 이 강물 어느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리…….

-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

(나) 판자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리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A〕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

(다) 어쩌랴,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 뜨락에 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 나절의 저 음험한 비애의 어깨들, 오, 어쩌랴,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혼자일 따름이로다. 뜨락엔 작은 나무 의자 하나, 깊이 젖고 있을 따름이로다. 전재산(全財産)이로다.

어쩌랴, 그대도 들으시는가, 귀 기울이면 내 유년(幼年)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 울도다. 오, 어쩌랴,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온 국토의 벌판을 기일게 기일게 혼자서 건너가는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보일 따름이로다.

㉠ 어쩌랴, 나는 없어라. 그리운 물. 설설설 끓이고 싶은 한 가마솥의 뜨거운 물. 우리네 아궁이에 지피어지던 어머니의 불, 그 잘 마른 삭정이들, 불의 살점들. 하나도 없이 오, 어쩌랴, 또 다시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전재산(全財産)이로다, 비인 집이로다, ⓔ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병치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와 (다)에는 내적인 갈등의 해소 과정이 드러나 있다.
④ (가)~(다)의 화자는 모두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14.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결과를 두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상이 좀더 집약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②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한 시적 표현이 되었군.
③ '죄'라는 시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
④ 소녀의 모습이 좀더 생기 있게 그려진 것 같아.
⑤ 소녀와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군.

15. 〈보기〉는 (다)의 이무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다)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무기'는 어떤 저주에 의하여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를 가리킨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서는 천 년을 묵은 뒤 적절한 때에 비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은 이무기는 한이 쌓여서 나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① '이무기'는 승천하지 못한 한을 품은 존재로서, 한을 안고 슬픔에 젖어 있는 시적 화자를 표상한다.
② '비'는 '이무기'의 한 맺힌 슬픔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③ '유년(幼年)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라는 표현으로 보아 시적 화자는 한스러운 과거와 단절되고 싶어한다.
④ '때가 아니로다'는 '이무기'의 독백을 빌려 시적 화자의 한탄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 있다.
⑤ '이무기'가 '온 국토의 벌판을 혼자서' 건너간다는 표현으로 보아 이 노래는 민족 전체의 한을 표현한 것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16. ㉠과 시적 정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② 바람은 딴 데서도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김수영, '절망' -
③ 그대는 아는가 /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오세영, '열매' -
④ 우리가 슬픔을 사랑하기까지는 / 슬픔이 우리들을 완성하기까지는 / 슬픔으로 가는 새벽길을 걸으며 기도하라. / 슬픔의 어머니를 만나 기도하라.
- 정호승, '슬픔을 위하여' -
⑤ 마을아 억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 /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 틈으로 / 나 또한 한 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길 흘러 흘러 /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
- 이동순, '물의 노래' -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 : 화자가 역사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음을 암시한다.
③ ⓒ : 아이들의 아름다움에 취한 화자의 감동이 드러나 있다.
④ ⓓ : 화자의 현실 인식과 대응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⑤ ⓔ : 화자의 내면이 사물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18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삶이란 결국 이러저러한 욕망을 갖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욕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나 견해가 존재한다. 되도록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반대로 욕망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만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욕망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를 취하건, 욕망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의 하나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욕망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이나 능력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어떤 욕망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욕망을 갖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욕망을 갖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욕망을 통제하는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덕의 문제는 결국 좋은 욕망을 갖는 문제이고 또한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문제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욕망의 통제가 중요한 도덕적 과제가 된다.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행(知行)의 괴리'를 전제로 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지행합일설의 입장에서는 지와 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부정 행위를 한 학생도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다. 그는 부정 행위가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 행위를 성공시킬 수 있고, 부정 행위를 하면 점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 교육의 초점은 '올바로 알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안다'의 대상은 사실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규범이나 당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범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스스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행위를 한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 행위를 한 학생들이 모두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에는 욕망에 의한 지행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욕망의 통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8. 위 글에 이어서 전개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②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③ 욕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④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⑤ 욕망은 삶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가?

19.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공공 시설에 비치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우
② 사람이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부질없이 불로장생을 꿈꾸는 경우
③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태아를 유산시키는 의사의 경우
④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경우
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편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모른 척하는 청년의 경우

20. ㉠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①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퍼 마라 /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 아니로다 / 가노라 휘젓는 봄을 시기하여 무엇하리오.
- 송순의 시조 -

② 풍파(風波)에 놀란 사공이 배 팔아 말을 사니 / 구절양장(九折羊腸)이 물보다 어려워라 / 이 후(後)란 배도 말도 말고 밭 갈기만 하리라. - 장만의 시조 -

③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어도 / 이 마음 얻은 것이 이 가운데 즐거워라. / 천종만사도 이 마음 옮기던가 / 금은 옥백으로 이 마음 옮기던가 / 진초의 부(富)로도 생각하면 거짓이고 / 조맹의 귀(貴)함도 생각하면 근심이라.
- 이황, '권의지로사'에서 -

④ 망혜를 죄어 신고 죽장을 흩짚으니 / 도화 시냇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어 있다. / 잘 닦은 명경 중에 그림 같은 석병풍 /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 도원은 어디인가 무릉이 여기로다. - 정철, '성산별곡'에서 -

⑤ 있으면 죽(粥)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뤄 말렸노라 /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 남의 부귀 불리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 박인로, '누항사'에서 -

21.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귀납(歸納)될
② 귀착(歸着)될
③ 귀환(歸還)할
④ 반환(返還)될
⑤ 환원(還元)될

22. ⓐ와 ⓑ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옳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
② '지(知)'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
③ 도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
④ 욕망의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⑤ 판단의 자율성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23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헹가래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후우 - 가슴을 쓸어내렸다.

"형, 우리 미술 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동 교사 뒷담을 넘어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먹은 다음 감쪽같이 들어오곤 했다. 재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필요 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뱉었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A)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형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써 지켜 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 선생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 온 그 숨은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더란 것이다. 교정에 모여 선 아이들도 입에입에 형우의 얘기로 만발했다.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 본 걸 하굣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나는 웃어 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형우, 네가 구원해 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두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 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길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 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의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두 아니란 거야.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 은행에 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 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재수파들은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는 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형우가 손을 흔들고 자기 집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유능한 반장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씁쓸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다.

〈중략〉

모 일간지 편집부국장을 지내는 학부형이 우리 반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반장이 그 학부형을 만나러 갔다. 그 신문사 기자가 학교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기표의 갸륵한 효성에서부터 재수파들의 우정어린 피뽑기와 급우들로부터 시작된 친구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되어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 있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의 콧등이 새삼 찡했다. 기사 맨 위에 담임 선생님과 반장, 그리고 기표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지시에 의해 그 기사는 각

교실 후편 게시판에 붙이게 돼 있었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부터 월요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사회 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위문 편지를 최기표에게 전달했다. 담임 선생님도 종례 때면 기표에게 편지 여러 장을 건네며,

"거기 여학생 편지도 많이 있으니까 혼자 몰래 보라구."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기표가 얼굴을 벌겋게 달구며 편지 다발을 책상 속에 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던 것이다.

"기표 얘기가 영화로 된다며?"

"그렇대. 재수파들을 중심으로 한 얘긴데 TV에 나오는 제3교실 같은 거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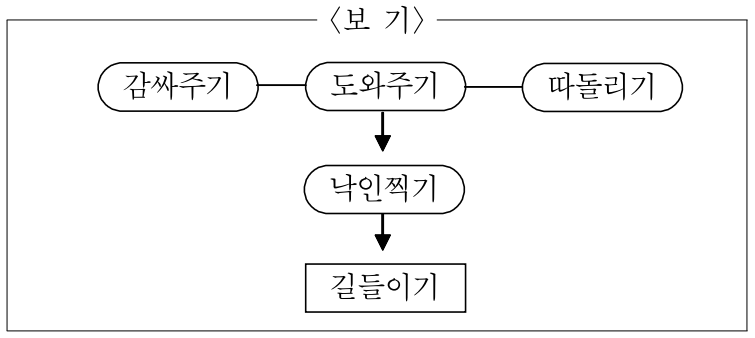
어디서 나온 얘긴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 전상국, '우상의 눈물' -

23. 위 글의 사건 전개 과정은 〈보기〉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낙인찍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 기〉



① 아이들이 기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② 기표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가 되었다.
③ 기표가 칭찬을 받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었다.
④ 형우가 기표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였다.
⑤ 재수파들이 형우에게 기표를 악마라고 말하게 되었다.

24. '나'와 '형우'의 대화 양상으로 보아 '나'의 말하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한다.
② 추측했던 것의 진위를 확인한다.
③ 상대방에게 다음 말을 재촉한다.
④ 앞으로의 일을 넌지시 알게 한다.
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묻는다.

25. 〈보기〉는 비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비위(脾胃)'는 원래 인체의 장기인 '비장'과 '위장'을 일컫는 말인데 비유적 의미로 확대되어 '어떤 음식물이나 일을 삭여 내거나 상대하여 내는 성미'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① 그 말이 폐부를 찌른 것이다.
② 아이가 들어오지 않아 애가 탄다.
③ 그들에게 쓸개까지 내놓을 작정이냐?
④ 적의 총부리가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⑤ 나는 그의 잔인한 행동에 간담이 서늘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A)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를 통해 기표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① 재스민의 향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향기는 항상 나에게, 창 앞에 한 그루 노목(老木)이 섰던 나의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
② 달리는 기차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유령의 무리처럼 요란스럽게 지나가는 불 밝힌 차창(車窓)에서 미소를 띤 옛날 소녀의 모습이 보일 때.
③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庭園)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볕이 떨어져 있을 때.
④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곁방에 문이 열리고 소곤거리는 음성과 함께 낡아빠진 헌 시계가 새벽 한 시를 둔탁하게 치는 소리가 들릴 때.
⑤ 당신의 살던 집에서는 낯선 이의 얼굴이 내다보고, 왕처럼 경이롭던 아카시아 숲도 이미 베어 없어지고 말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27. 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인간의 적대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어.
② 나는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③ 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폭력이나 사실의 왜곡 등은 사회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④ 나는 '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대립되는 인물들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
⑤ 나는 문체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깔끔한 문장으로 쓰여 있어 읽기가 편했어.

〔28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天孫)*은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 이색, '부벽루' -

* 천손 :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나) 귓도리 져 귓도리 에엿브다 져 귓도리
어인 귓도리 지는 [둘] 새는 밤의 긴 소릐 쟈른 소릐 절절(節節)이 슬픈 소릐 제 혼자 우러 녜어 사창(紗窓) 여윈 줌을 술드리도 씨오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는 너뿐인가 ᄒᆞ노라.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다) 천층랑* 한 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 무단한 회오리 바람이 환해* 중에 나리나니
억만 장(丈)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것네.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고
ⓑ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네.
오동 저문 날 비에 외기러기 우러옐 제
관산 만리 길이 눈에 암암 밟히는 듯
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스쳐 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望夫) 산전(山前)에 석양이 거의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眼力)이 다했던고
낙화 말이 없고 벽창(碧窓)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 새들 어미를 그리누나!
ⓒ 팔월 추풍(秋風)이 띠집을 거두니
빈 깃에 쌓인 알이 물불을 못 면하네.
생리 사별(生離死別)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 장(丈) 백발이 일야(一夜)에 기도 길샤
ⓓ 풍파에 헌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벗들아!
강천 지는 해에 배는 탈이 없는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예퇴를 겨우 지나
만 리 붕정(鵬程)을 멀리곰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딪쳐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 가이 없고 어안(魚雁)이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매화나 보내고져 역로(驛路)를 바라보니,
옥량* 을 예 보던 낯빛인 듯
ⓔ 양춘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넋이 조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눌 위하야 적시는고.
- 조위, '만분가'에서 -

* 천층랑 : 험한 물결. * 환해 : 관리의 사회. * 옥량 : 옥대들보.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무상감에 젖어 있다.
③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옮아가고 있다.

29. (가)~(다)의 '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조각달'은 결핍의 의미를, (나)의 '둘'은 충만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② (가)의 '조각달'은 쓸쓸한 상황을, (다)의 '명월'은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③ (나)의 '둘'은 정적인 느낌을, (다)의 '명월'은 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④ (가), (나)의 달은 관념적 존재이나, (다)의 달은 실제적 존재이다.
⑤ (가)~(다)의 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초월적 존재에 기대어 소망을 이루려 하고 있다.
② 공간적 배경이 시작(詩作)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
③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인간사와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⑤ 구체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1. 수업 시간에 (나)를 바탕으로 평시조 짓기를 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하여 지은 것은?

〈조 건〉
○ 원시(原詩)의 주제 의식을 살릴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① 가을 밤 달빛 아래 귀뚜리 귀뚤귀뚤
떠나 간 내 님 얼굴 살며시 떠오르네.
무정타 떠나간 내 님 소식 한 자 없나뇨.
② 집 떠난 석 삼 년에 내 마음 둘 데 없어
동산에 난 초승달에 고향 소식 묻자 하니
무심타 저 구름 속에 문 닫고 들어가네.
③ 지나는 바람에 님인가 여겨 나서 보니
감나무 가지 사이 달빛만 환하구나.
두어라 달빛 속에나 내 님 모습 보리라.
④ 집 잃은 두견이 무슨 미련 저리 많아
이 골짝 저 골짝 오명가명 슬피 우나.
저 두견 내 마음 같아 골골이 울고 가네.
⑤ 꽃 피면 온다 하던 어여쁜 우리 님아
꽃 져도 아니 오니 차가운 방 홀로 지키네.
긴긴 밤 잠 못 이룬 채 나무 되어 서 있네.

32.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위는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 가게 되었다. 그는 끝내 유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는데, 이 때에 임금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만분가'이다.

① ⓐ : 작자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조정에 불어닥친 정치적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 : 무오사화 당시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로 볼 수 있다.
③ ⓒ : 임금의 사랑을 잃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작자 자신의 처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④ ⓓ : 무오사화의 화(禍)를 면하기 위해 작자 자신과 동료들이 함께 피난했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 : 유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작자 자신이 유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문자는 말의 대용물이요 보조 수단이라고 한다. 문자가 말의 대용물이라는 근거 위에서 소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 즉 표음(表音)에 충실할수록 좋은 문자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글자와 음소 사이에 1 대 1의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문자는 말의 대용물로서만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소리를 충실하게 나타낼수록 이상적인 문자가 되는 것일까?

문자가 말의 대용물이라는 생각은, 문자를 보면 우선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를 머리에 떠올리고 그 청각 영상에 의해서 [개념을] 파악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문자 생활의 비중이 큰 현대 사회에서 문자는 독립적으로 개념을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가령 '꽃잎'이란 글자를 보면 〔꼰닙〕이란 소리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고 직접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이나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 문자가 소리의 매개 없이 직접 개념과 통한다는 이야기다. 문자는 이렇듯 말의 대용물이 아니라 어엿하게 독자성을 갖추고 있는 직접 기호인 것이다. 결국 문자가 표음에 충실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문자로 하여금 직접 기호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길이라면, 문자는 표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말에서는 〔홀기, 홍만〕이라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흙만'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것은 실제 소리와 관계없이 일부러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태를 중시하여 표기하는 것은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연관성을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웃어라, 웃더라, 웃는다' 등에서 어간을 '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어간을 실제 소리에 따라 '웃-, 욷-, 운-'으로 분화시켜 표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우리말과 같이 조사나 어미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 시각상의 통일을 위한 표기는 우리말의 특질상 거의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자는 표음에서 벗어나는 대신 시각상의 통일성이라는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우리의 현행 맞춤법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문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효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글의 음절 단위 표기 방식(소위 '모아 쓰기')도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효율성은 우선 글자 모양의 집중성에서 온다. 'ㄲㅗㅊ'이나 'ㄱㅜㄹㅡㅁ'과 [같이] 음소 단위로 풀어 쓰는 것보다는 '꽃'이나 '구름'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것이 시각적인 집중성을 높여 의미 해독을 쉽게 해 줄 수 있다. 더구나 모아 쓰기 방식은 동음이의어를 분별시켜 주는 일에도 기여한다. '반드시~반듯이', '이미 떠났다~임이 떠났다'와 같은 경우 풀어쓰기를 통해서는 시각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모아 쓰기를 하면 구분이 가능해진다.

음소 문자는 문자 발달 과정으로 보면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언어가 가진 특질을 참작하여 적절하게 형태적인 고려를 취하는 것이 문자 표기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기도 하다.

33. 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① 한글의 구성상 특질
② 우리말 표기법의 원리
③ 말과 문자의 바람직한 관계
④ 문자 표기법의 이상적인 방향
⑤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차이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상반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일부 견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④ 비슷한 현상에 빗대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35.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는 경우도 있다.
② 영어의 'tree', 독일어의 'Baum', 일본어의 'き'에 대응하는 우리말은 '나무'이다.
③ 〔ㅐ〕와 〔ㅔ〕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자를 통해서는 '배'와 '베'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
④ '산'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 그 물리적인 소리는 사람마다 미묘하게나마 다르지만 모두 같은 소리로 받아들여 이해하게 된다.
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saraŋ〕이라고 발음하지만, 영어에서는 〔lʌv〕, 독일어에서는 〔líːbə〕, 프랑스어에서는 〔amuːr〕로 발음한다.

36. ☐ 안의 어휘 중에서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있는 ② 개념을 ③ 발음이 ④ 같이 ⑤ 어려운

37. 〈보기〉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위 글의 글쓴이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요즘같이 거의 모든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상황에서 한글의 모아 쓰기는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풀어쓰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경우 알파벳 26자만 있으면 어떤 문장이라도 쉽게 쓰거나 입력할 수 있지만, 한글의 경우는 24개의 자음과 모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실제 사용되는 글자만 하더라도 2,800여 자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자판으로 이를 구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뒤따르게 되고 조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난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글도 하루빨리 풀어쓰기로 전환해야 한다.

① 문자도 하나의 문화이고 문화는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턱대고 외국어의 표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② 현실적인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원칙이나 규범도 소중한 법이다. 편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쓰기를 한다는 것은 한글의 원리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③ 우리말은 표음도 중시하지만 단어의 형태도 중시하는 절충적인 표기법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형태를 중시하는 표기는 풀어쓰기를 하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④ 문자는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지금 풀어쓰기를 시도한다면 지금까지 축적된 수많은 옛글들을 읽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⑤ 문자의 효용은 오히려 읽을 때의 편리함에서 찾아야 한다. 풀어쓰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떨어뜨려 문자 해독과 독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안평국 왕비가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어 보내고 회답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내전에 들어 왕비와 더불어 옥루에 올라 난간에 비기어 앉아 성의를 생각하시고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홀연 기러기가 중천에 높이 떠서 긴 소리로 아뢰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 왕비 앞에 앉거늘, 왕비가 기러기만 보아도 성의를 본 듯하여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기러기가 발에 한 통의 편지를 매고 왔는지라. 일희일비하여 급히 풀어 뜯어보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불효자 성의는 삼가 백배(百拜)하옵고 부왕 전하와 모비 마마께 올리나이다. 이별이 오래되었사온데 양 전하의 기후 강녕하심을 기러기 편으로 듣자오니 반갑고 설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사옵니다. 연전에 모비의 병환을 위하여 슬하를 떠나 서역을 갈 때에 천신만고 끝에 십생구사(十生九死)로 수만리 서천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돌아오던 도중 바다 가운데에서 포악한 변을 만나 뱃사람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전하였으나 두 눈을 잃고 한 조각 나무판에 태워져 푸른 파도 속으로 밀쳤으니 십이 세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파도에 밀려서 지향없이 가옵더니 여러 날만에 겨우 한 섬에 다달았습니다. 짐작하니 언덕이어서 더듬어 보니 바위가 있기에 바위 위에 올라 정신을 수습하였더니 바람결에 대 우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더듬어 보니 과연 대밭이 있었습니다. ㉠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덜고 앉아 오작에게 실과를 얻어 먹고 있었더니 천지신명이 도우사 중국 호승상이 남일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시는 길에 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핌을 입어 승상부에 머물게 되었던 일이며,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된 전후 사연과 호승상의 수양자된 말씀을 낱낱이 아뢰고, 공주와 더불어 고국으로 즉행하오니 또 중도에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양친은 살피옵소서."

하였더라. 왕비가 보기를 다함에,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왕비가 기러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 때 세자 항의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엎드려 여쭙기를,

"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悲愴)하십니까?"

왕비가 항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항의가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성의의 필적이었다. 항의가 말하기를,

"서간을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나가시옵소서."

하더라.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 때 상이 항의에게 칙교(勅敎)하기를,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하셨다.

차설, 항의가 마음 속으로 헤아리되,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는고. 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이날 항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

〈중략〉

적부리가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한 소녀가 말을 타고 진전에 횡행함이 제비 같은지라. 적부리가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들어 칠십여 차례가 되도록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었는데, 기러기가 또 날개에 모래를 묻혀 적부리의 얼굴에 뿌려 두 눈에 모래가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할 때에 공주의 칼이 번뜩하더니 적부리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 적진 중에서 적부리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장창을 들고 내달아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는 조그만 여자이다. 내 형을 죽이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

느냐?"

하니 이는 부리의 아우 문이라. 오백 근 철퇴를 들고 달려들어 싸울 때에, 황성 장졸이 접응(接應)하여 공주를 도우니 창검이 서리 같았다. 문이 더욱 분하여 서로 싸워 칠십여 합에 이르러도 서로 승부를 결정 짓지 못할 정도로 검술이 신묘하니 참으로 적수였다. 공주가 정신을 진정하여 무슨 경문을 외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오방신장(五方神將)이 내려와 좌우로 적문을 치며 호령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라. 문이 황겁하여 도망하고자 하더니 문득 공주의 검광이 빛나며 문의 머리가 검광을 따라 떨어졌다. 공주가 칼을 들어 적부리의 군사를 치고자 하다가 문득 깨닫고 '적부리의 군사는 곧 부마국 백성이다' 하고 일제히 호령하여 세우고 큰 소리로 깨우쳐 돌려보내니, 군사들이 물러나와 공주의 은덕을 송덕하며 만세를 불렀다. 군사 한 사람이 아뢰기를,

"망발스런 모습이 되었사오니 소졸들이 전배(前陪)*함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공주가 허락하여 앞세우고 황성 일행은 뒤를 따라 일행과 인마를 거느리고 도성으로 들어가니 거리마다 송덕하며 만민이 모두 천만세를 부르며 남녀노소 없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 단저 : 짧은 피리.

* 전배(前陪) :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나 상관을 뵐 때에 앞을 인도하는 일.

38. 위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공주는 왜 적부리의 군사들을 살려두었을까?
② 성의는 어떻게 해서 외딴 섬에 이르게 되었을까?
③ 공주는 어떤 도움을 받아 적부리 형제를 물리쳤을까?
④ 항의는 어떻게 편지가 성의가 보낸 것임을 알아차렸을까?
⑤ 왕비는 어떻게 항의의 속셈을 알고 성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39. ㉠과 같은 상황에서 '성의'가 불렀을 만한 노래를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난 해 알은 체 하던 기러기
올해도 머리 위를 가로지르니
외로운 강가에 반가움이 앞서네
② 깊은 숲 향기를 따라 들어가
나무 베고 잔돌 가지 골라 놓으니
원앙은 오지 않고 까마귀만 우짖네
③ 피리를 들어 어깨에 맞추고
쓸쓸한 가을 바람에 곡조를 맞추며
세월의 덧없음을 서글퍼 하네
④ 새벽 바람에 눈물로 이별한 임
약수가 가렸는가 소식이 망망하니
재회를 기약치 못하고 한숨만 쉰다
⑤ 옛날을 생각하고 눈물지으며
피리를 부니 까막까치만 모여드네
부모의 슬하가 따뜻한 걸 너희는 아느냐

40. 위 글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항의'는 '성의'의 귀향 소식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군.
② '적부리'와 '공주'는 난형난제(難兄難弟)의 실력을 갖고 있군.
③ '왕비'는 '성의'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군.
④ '성의'는 마침내 금의환향(錦衣還鄕)하여 부모 곁으로 오게 되었군.
⑤ '성의'는 '호승상'의 결초보은(結草報恩)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군.

41. 위 글과 〈보기〉의 공통적인 이야기 요소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옛날에 어떤 왕이 계속 딸만 낳았는데 그 일곱 번째 딸이 바리데기였다. 일곱째도 또 딸이라는 소리에 화가 난 왕은 딸을 갖다 버리도록 시켰다. 십여 년 후 왕과 왕후가 죽을 병에 걸려 점을 쳐보니 저승에 있는 약수를 먹어야 산다고 했다. 왕은 여섯 딸들에게 그 약을 가져올 것을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데기는 약수를 구하러 저승으로 떠난다. 공주는 수 많은 역경을 겪지만 불보살의 도움으로 무사히 저승에 도착한다. 그러나 저승의 수문장이, 같이 살면서 아들 일곱을 낳아주고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요구를 들어준 바리데기는 약수를 얻고 돌아와서 왕과 왕후를 살려낸다. 바리데기는 만신의 왕인 무당이 되고 남편과 아들들도 각각 신이 되었다.

①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② 주인공의 과업 성취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③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④ 주인공이 노력의 대가로 영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⑤ 주인공이 어려운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비범성을 드러낸다.

42.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정의를 위한 투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
② 성의와 항의가 벌이는 싸움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들이 다툼을 벌이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③ 남녀의 결연, 환상적인 이야기, 뚜렷한 선악 대결 등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서 오늘날 독자들의 취향에도 맞을 것 같아.
④ 권력을 되찾기 위해 항의의 제안에 응하는 적부리 형제의 행위를 통해 당쟁에서 밀려난 양반들의 실세 회복 의지를 엿볼 수 있어.
⑤ 공주가 싸움의 전면에 나서서 공을 세우는 장면은 남성 중심의 봉건적인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43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지금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예술, 여가 생활 등은 물론이고 사상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도 모두 상품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방식마저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리프킨(Jeremy Rifkin)은 [접속]과 '문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접속은 인터넷은 물론 전자 제품, 자동차, 주택 같은 다양한 실물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포괄적 추세이다. 접속은 이들 상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상대 개념은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산업 시대는 소유의 시대였다. 기업은 많은 상품을 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는 상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소유하여 자신의 존재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고객이 평생토록 자신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고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고 서비스나 다른 영역의 접속에 관한 권리를 팔면서 고객의 시간을 장악해 나간다. 우리의 삶이 상품 교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에 바탕을 둔 체제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접속의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다 서비스화될 수 있다.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돈을 매개로 매매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의 모든 인간 활동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계에서는 감정의 연대, 믿음 등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간 관계가 입회, 등록, 요금 등에 기반을 둔 계약 관계로 바뀐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이 순전한 상업적 관계로 얽혀 있다. 타인의 시간, 타인의 배려와 애정을 돈으로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상품화되고 공리와 영리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진다.

리프킨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사실은 우리 삶의 기저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문화는 늘 상업에 선행했다. 상업은 문화의 파생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 문화가 상업화를 위한 재료 공급원으로 전락했다. ㉠ 문화 자본주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문화적 다양성을 샅샅이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인간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문화 영역마저 상업 영역에 완전히 흡수당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기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결국 인간의 문명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리프킨은 지리적 공간에 뿌리를 둔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인간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 체험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잃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와 산업의 적절한 균형을 복원시키는 일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이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 영역이 상업 영역에 완전히 흡수되면 인류 문명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② 접속은 인터넷은 물론 다양한 실물 영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③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다.
④ 접속의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매매될 수 있어 인간의 삶이 점점 상품화된다.
⑤ 접속의 시대에서 기업은 물건보다는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로 판매한다.

44. 위 글의 구조를 가장 적절히 정리한 것은?

① 현상 소개 → 현상 진단 → 대응 방안 제시
② 과거의 사실 회고 → 현재의 상황 분석 → 미래의 전망
③ 구체적 사례 제시 → 사례의 일반화 → 향후 전망 고찰
④ 기존 견해 소개 → 기존 견해 비판 → 새로운 견해 제시
⑤ 상반된 견해의 소개 → 견해의 장단점 비교 → 견해의 통합

45.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이후부터 일본식 김치 일색이었던 세계 김치 시장을 우리 김치가 석권하게 되었다.
② 예전에는 식혜를 각 가정에서 담가 먹었는데 공장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식혜를 담가 먹는 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③ 이탈리아에서는 미국계 대형 커피 체인점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규모 독립 커피점이 성업 중이다.
④ 파블로 피카소와 조루즈 브라크는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조각과 이집트 미술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제작하여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⑤ 아일랜드의 마을에서 실감나게 공연되는 전통 무용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역 만리의 시청자에게 전달될 때는 단순히 눈요깃감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46. 위 글에 사용된 '접속'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원리를 〈보기1〉과 같이 정리했다. 이를 활용하여 〈보기2〉를 썼다고 할 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1〉

새롭게 부각된 사회 현상을 규정할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이 현상의 공통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존의 용어를 차용한다.

① 감성 ② 개성 ③ 도전 ④ 정의 ⑤ 참여

47. 글쓴이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국적 기업의 상업주의가 문화적 다양성 파괴의 주요인이므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해.
② 문화적 다양성 상실의 위기는 소유 관념의 약화에서 야기된 현상이므로 올바른 소유 관념을 정립하기 위한 시민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
③ 지리적 공간에 뿌리를 둔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하므로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
④ 사람들이 문화를 일시적으로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⑤ 문화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고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들에게도 고급 문화 창조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

〔48 ~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황부장 (대본을 보다가) 그런데…… 여기 너무 어렵지 않아?
김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순히 윤동주와 친구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황부장 내 말은, 이렇게 해선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야. 이렇게 무덤덤해서 어디 보겠어?
김다은 그래도 없는 얘길 만들어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녜요?
황부장 정리해.
김다은 예?
황부장 친구들도 송몽규 하나만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말야. 윤동주와 송몽규 둘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적당히 상상력을 발휘하라구. 이래 가지곤 아무도 안 봐. 3초야. 3초. 3초 동안 시선을 잡지 않으면 리모콘이 팍팍 돌아가는 거 알지?
김다은 그래도 시인 윤동주 프로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황부장 다르긴 뭐가 달라? 파는 건 다 마찬가지야. 서태지든 윤동주든. 방송의 요체는 그거야. 김작가도 앞으로 방송 생활 계속 하려면 명심해 두라구.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여기. 이 부분 좀 재밌게 ㉠바꿔. 알았어?
김다은 부장님 그건 좀…….
황부장 뭐가? (황부장, 짜증난다는 듯 김다은을 바라본다. 김다은, 황부장을 빤히 쳐다본다)
황부장 못 바꾸겠다는 거야?
김다은 예.
황부장 예? 지금 예라고 그랬어?
김다은 순수 드라마도 아니잖습니까? 다큐드라마라면 어느 정도 진실을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황부장 뭐가 마음대로야? 있는 사실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자는 거 뿐인데. 혹시 김작가, 내가 교양 프로만 하던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냐?
김다은 아닙니다.
황부장 김작가, 아니, 바로 말하지. 김다은씨, 김다은씨가 작가 출신 피디라고 조연출로 붙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구. 아마 국장 빽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건 어디까지 내 프로야. 알아?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마. 난 그런 거 못 봐줘. 알았어?
김다은 …….
황부장 바꿔. 내일까지. (황부장, 나간다. 김다은, 대본을 구겨쥔다. 그대로 서 있을 때 어디선가 서서히 아이들 동요 소리.)

(나)

사이또 너희들 말이 맞다.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놈에게 황국 정신이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우리 후꾸오까 감옥의 매운 맛 좀 보여줘라.
간수들 예. (간수들, 윤동주를 바로 세운다.)
간수1 물에 젖은 몽둥이로 뼈마디를 녹이고. (간수들 중 두 명이 물이 흐르는 몽둥이를 들고 번갈아 윤동주를 내리친다. 그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윤동주. 이에 간수 중 한 명이 수건으로 윤동주의 입을 막는다. 계속 몽둥이가 춤을 춘다. 자지러지는 윤동주.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간간이 신음 소리만. 이때 어디선가 나즈막히 허밍.)
간수2 칭칭 감는 채찍으로 살점을 떼어내고. (간수들 중 다른 두 명이 채찍을 휘두른다. 고통에 겨워 몸을 비트는 윤동주.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나즈막한 노랫소리가 점점 커진다.)
간수1 매운 고추물로 내장이 뒤틀어지도록. (간수들 중 또 다른 두 명이 윤동주를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물을 붓는다. 몸을 비트는 윤동주. 물이 사방으로 튄다. 나즈막한 노랫소리가 점점 비통한 목소리로 커지기 시작한다.)
간수2 손톱 발톱 뽑아내어 신경 끝까지 고통이 배도록. (간수2, 기구를 들고 윤동주의 손톱과 발톱을 뽑는다. 몸을 부르르 떠는 윤동주. 무대가 핏빛으로 물든다. 허밍이 비통한 노래로 바뀐다.)

(간수들, 윤동주를 바닥에 내던진다. 윤동주,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는다. 합창소리 끝날 즈음 김다은 등장한다. 김다은, 높은 곳에서 아래쪽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는 윤동주를 바라본다. 황부장, 김다은의 옆으로 다가온다.)

황부장 김작가, 수고했어. 김작가는 확실히 재능이 있어. 한 마딜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알아듣거든. 사이또라는 가공의 인물을 생각해낸 거 아주 멋진 아이디어야. 그 바람에 윤동주의 옥중 장면이 살았다구. 아주 극적이고 말야.

김다은 …….
황부장 (슬며시 김다은의 어깨를 짚으며) 김작가 언제 입사했지?
김다은 …….
황부장 이제 조연출에서 벗어날 때가 됐지?
김다은 …….
황부장 다음 프로 개편 때 내가 적극 추천할게.
김다은 고맙습니다.
황부장 고맙긴…….

48. (가)에 나타난 '황부장'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②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억누르고 있다.
③ 상대방을 무시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④ 상대방을 내심 이해하면서도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⑤ 경험을 내세워서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변하고 있다.

49. 〈보기〉의 화자가 (나)의 '김다은'에게 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最初)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에서 -

① 당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십시오. 한 인간의 고뇌를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②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③ 조급하게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쉽게 사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려움을 견디면서 신념을 지키는 일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⑤ 작가란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언어를 다듬으며 사는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려 하지 말고 당신의 의지를 작품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50. 〈보기〉는 어느 연극 동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위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1점〕

게시판

이 연극을 보신 소감을 자유롭게 올려 주십시오.

① ☐ 인간의 삶이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연속 아닐까요. 황부장과 김다은의 대립은 그러한 갈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② ↳ [답변] 황부장과 김다은의 논쟁이 끝나고 황부장이 퇴장한 후 들려오는 동요 소리는 황부장에게도 순수한 일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③ ↳ [답변] 윤동주는 순수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윤동주의 이야기를 극 속의 극으로 꾸며 넣은 것은 윤동주와 대비되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④ ☐ 황부장의 행위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선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방송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⑤ ☐ 윤동주가 고문 받는 장면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비극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 2 3 4 5

제 목 ▽ 찾 기

51. ㉠에 내포된 의도와 가장 관계 깊은 말은?

① 모방(模倣) ② 윤색(潤色) ③ 절충(折衷)
④ 천착(穿鑿) ⑤ 호도(糊塗)

〔52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통 체증으로 우리가 입는 손실은 막대하다. 연료의 소모, 시간 허비와 같은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배기 가스로 인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도로를 확충하여 도로율을 높이고 차량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공학자들은 첨단 교통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도로·차량 신호 등의 기존 교통 체계에 전자·정보 통신·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도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최적의 교통 흐름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1997년 물리학자 케르너는 교통의 흐름을 3단계로 구분한 '단계 전환'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교통 흐름을 '원활한 소통' 단계, 차량 진행이 늦어지면서 나란히 가는 '동기화 소통' 단계, 그리고 차량 흐름이 멈추는 '정체' 단계로 구분했다. 원활한 소통 단계에서는 차량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속도를 높이며 차선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 상태는 입자들이 임의대로 움직이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밀도가 낮은 기체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 러시아워 때는 교통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차량 평균 속도가 줄어든다. 이는 액체의 상태와 유사하다. 이 상태에서 차량이 더 ㉠늘어나 밀도가 더 증가하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고체 덩어리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교통 정체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액체가 기체, 고체로 바뀌는 것과 같은 '상전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의 흐름이 물질의 상전이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정체를 막을 수 있는 법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물리학적 방법으로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밀도, 온도, 기압 등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물질의 질적인 상태가 전환되는 상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물질의 상전이 현상을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 평균 속도, 신호 체계 등의 요소들과 비교해 보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임계치를 찾아낼 수 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차량 수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 그 때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이다. 이런 방식으로 교통 체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화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임계치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 지역의 도로망을 구성한 뒤 일정한 차량을 배치해 실험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평균 속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임계치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즉 도로에 지능을 부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차량의 흐름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켜 전환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적화 모델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케르너의 이론은 상전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동기화 소통에서 차량은 차선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③ 교통 공학자들은 첨단 교통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④ 원활한 소통 단계는 물리학적으로 보면 기체 상태에 해당한다.
⑤ 임계치를 찾아내기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53. 위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한다.
②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빈민층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③ 할인율에 따른 예상 고객수를 계산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④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찾아서,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
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기업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한다.

54. 위 글에서 설명한 '교통 흐름상의 임계치'를 추리해 본 것이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차량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위치
② 구간과 구간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대 평균 속도
③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호등의 최적 점멸 주기
④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가변 차선을 운용하기에 적절한 시간대
⑤ 교통 정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간당 통과시킬 수 있는 차량의 최대치

55. ㉠과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게 사용된 것은?

① 한두 번 하다 보니 거짓말이 차차 늘었다.
② 올해 들어 그 정당의 세력이 많이 늘었다.
③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늘었다.
④ 전쟁이 끝난 후 궁핍했던 살림은 차차 늘었다.
⑤ 꾸준한 노력의 결과 그는 실력이 부쩍 늘었다.

56. ㉡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 기〉

◦ ( )
↓
◦ 교통의 흐름은 물질의 상전이 현상과 유사하다.
↓
◦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① 상전이 현상은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② 상전이 현상은 일종의 정체 현상이다.
③ 물리학적 방법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④ 교통 체증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⑤ 교통의 흐름은 함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57 ~ 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과 비예술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은 미학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요한 물음 중의 하나이다. 19세기까지 대표적인 예술론이 되어 왔던 모방론과 표현론은 모든 형태의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각기 모방과 표현을 들고 있다. 이 이론들이 가정하고 있는 바는 모든 예술에 공통적인 본질이 존재해야 예술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부터 이러한 본질주의적 시각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디키(G. Dickie)는 이러한 본질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예술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나) '예술' 또는 '예술 작품'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디키는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분류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라고 말한다. 예술 작품의 분류적 의미란 '예술 작품'이라는 말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어떤 사물이 예술 작품들의 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에는 당연히 아름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술'을 평가적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분류적 의미의 예술은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분류적인 의미로서 '예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현대의 예술 작품들 중에는 눈으로 보아서는 예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 작품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분류적 의미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디키의 정의는 현대의 다양한 예술 현상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예술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의미가 있다.

(라)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에 대한 디키의 정의는 '인공성(artifactuality)'과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 수여'라는 두 가지의 필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으로 디키는 모든 예술 작품은 인공적인 사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분류적 의미에서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이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그 대상이 인공품들 중의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키의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디키가 말하는 '인공성'이란 기존의 인공품이나 자연물을 물리적인 힘으로 가공하지 않고도 예술가에 의해 예술로서 취급되어 미술 전시회라는 새로운 맥락 안에 놓이면 인공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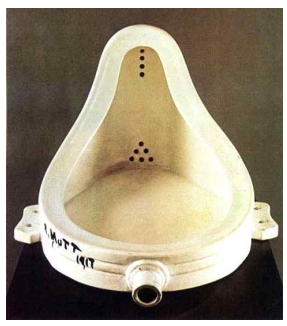
(마) 예술 작품의 둘째 필요 조건은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 수여에 관한 것이다. 이 조건은 예술 작품이 제도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 제도적 존재란 어떤 제도에 의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여된 자격이나 지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술계는 음악, 문학, 조각, 연극, 회화 등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체계에 속하는 대상들에게 예술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고유의 제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예술계에 의해 감상 후보로서의 자격이 수여되어야 비로소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예술이건 나쁜 예술이건 관계없이 가치 중립적이고 분류적인 의미에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 정의하고자 했던 디키는 실제의 감상이 아니라 감상의 '후보'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예술 작품의 필요 조건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57. 각 단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가) : 새로운 시각에서 예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② (나) : 분류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 : 분류적 의미의 설정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④ (라) : '인공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⑤ (마) : '감상의 후보에 대한 자격 수여'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58. 〈보기〉에 대한 '디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뒤샹이 1917년 뉴욕의 앙데팡당전에 일반 상점에서 구입한 남자용 소변기를 '샘〔泉〕'이란 제목만 붙여 그대로 출품한 것이다. 주최측은 그것이 부도덕하고 상스럽다는 점과 예술가의 수공을 거치지 않아 창조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시를 거부하였다. ……이후로 '샘'은 예술계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① 뒤샹이 직접 '샘'을 제작하여 출품했더라면 주최측이 전시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뒤샹이 출품한 '샘'은 부도덕하고 상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최측이 전시를 거부한 것이다.
③ 예술 작품은 현실을 모방하거나 표현하는 예술의 공통적 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뒤샹의 작품은 그것이 부족하다.
④ 뒤샹이 출품한 '샘'은 인공적인 사물이었지만 예술계의 인정을 받지 못해 주최측이 전시를 거부한 것이다.
⑤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주최측은 '샘'의 전시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59. 〈보기〉의 ⓐ~ⓔ 중, ㉠의 의미로 쓰인 것은?

〈보 기〉

ⓐ사람이란 대체 묘한 존재다. 남 잡고 남 곯려서 저만 살지겠다는 욕심쟁이가 곧 ⓑ사람이다. 산 속에 있는 열 놈의 도둑은 곧 잡아도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놈의 도둑은 못 잡는 것이 사람이요,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더니,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탄식을 절로 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0.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염두에 둔 것이다.
② 예술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작품을 염두에 둔 것이다.
③ 물리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은 작품을 염두에 둔 것이다.
④ 예술 작품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작품을 염두에 둔 것이다.
⑤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